



發行所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文書委員會
大阪府西成區梅田五丁目二番地
電話 大阪四五一九六
發行人 丁 仁 壽
編集人 羅 曾 男
印刷所 僑 文 社
購読料 1部 20円(送料共)
毎月 1回 15日 発行

復活の事實은 否定 못한다

無数한 反對論이 解消되었다

金 新 聞

一、생전에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부녀들의 보고를 듣고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도 도마같은 사람은 「주의 부활」을 의심하려했다. 의심의 습관화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나 사람의 말도 믿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것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이들은 의심하고 의심하며 아무리 알 믿을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실제로 그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다.

나로래는 장군은 「사실보다 완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는데 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완고한 사실은 적어도 세가지는 있는 것 같다.

① 주 예수의 죽음을 인하여 절망속에 빠졌던 제자들이 평박과 순교도 두려워 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써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실이다.

②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③ 부활의 신앙에 입각해서 새로운 신앙정신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로는 사람을 속이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부활」 반대론이 전개 되었으나 「생자필멸」이라는 과학적 판단에 기초를 두고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있는 사실까지도 부인해 버리는 것이 현대인의 제일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된다. 객관적 사실이라 는 것은 인간의 주관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復活은 基督教의 秘義

信仰者도 贖罪에서 體驗한다

牧師 배기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삼일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독교자들은 확신한다.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와 미신자를 구별하는 한 가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쉽게 믿지 않고 도리어 의심한다. 이 부활에 대한 의심들이 많은 중 그 몇가지를 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②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③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④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⑤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⑥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⑦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⑧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⑨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⑩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거짓으로 선전할 하였다.

예수도 卒業하려는 愚患으로

— 敎會의 三月은 危機 —

三月을 맞이하면 敎회의 여러가지 일들에 즐거움과 비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二世들의 소중공 대학에 입학하는 사실들을 기쁜 일의 하나로 생각함과 동시에 종교대학을 졸업하는 일도 민족적인 전지에서 축하해야 할 즐거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안락까지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졸업수없이 비통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제일 대한 기독교 지도층과 일반 교우들의 반성을 바라 이 글을 쓴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남들 교사가 있었다.

每年 다른 復活主日

지해야 한다

부활절은 「은날이요」 「기독교 절기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大韓 聖書公會의 偉業

現代語訳 學生版 發行

대한성서공회 一九六四年도 상반기 성서위원회가 지난十一月二十二일 오전九시三〇분부터 일제히 부인자들의 출일이 금지된 가운데 비공개리에 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총규모 四四〇二,六七〇원의 방대한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신약성서 새번역을 「학평판정」으로 출판하도록 결정하여 교회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一九六六年까지 二백五十만권의 성경을 반포하기 위한 「새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운동추진계획」을 승인 통과시켰으며 현

카나다의 膳物

가나다 장로교회 무인도들이 재일대한국교도교역자들에게 서적을 기증해왔다. 그들은 재작년 부터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모금해서 선물로 보내고 있다. 효과 있는 활용이 되며 드린 이들의 심정이 통쾌하다 하리라.

宣敎와民族問題

디렌마에서의 解決을

최근에 대한 기독교 교회는 내부에 민족론이 대두한 모양이다. 1월 중순에 있었던 교역자 회의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논의 되었다고 한다. 이 회의는 대한 기독교 회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제인 데 현재 회의에서 지나오신 분들과 기독교의 미래 이상적이라는 모습을 모색한다는 것은 교역자들의 교양문제 같이 보여진다.

정형에서 현상을 논하는 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기독교는 민족운동을 비롯해서 사회운동, 국어, 애호운동, 경제운동 등의 온갖 활동을 해 왔는데 오늘날의 기독교 청년들은 「국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왜 말로 모른 의사를 표현을 해 버리는 현상을 어찌 방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청년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에게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년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독교회의 이상적 모습에 민족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 한편서 유대인들의 시온이즘과 독일인들의 민족주의를 보라고 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을 이해해 주려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가 폭발되었다.

여기에는 피차의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요 문제의 본질적 정리가 있어야 할 것같이 보여진다. 양론의 주장에는 어떤 사실이 있으나 비약이 크기 때문에 큰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 같다. 사실 한국 기독교사에 의

최근에는 모든 부문이 분리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기독교회의 활동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재일교회는 대한 기독교회 일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견해와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의 수가 강하여져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민족을 무시하지 않는 활동을 하나 등한시하지 않는지 문제다. 복음전도의 시간과 역량이 부족할 때 민족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활동할 수 없다는 뜻

인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협동하며 보다 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에 유대인의 시온이즘과 독일인들의 민족주의와는 대조되는 기독교의 민족에 대한 봉사는 복음의 빛이 그들을 인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관할수 없어서 하는 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각자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이의 원전에 맡아 활동하도록 협력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伝道の使命과 責任

牧師와 平信徒의 共通意識

金 덕 성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령이 많지만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로마 십장十五절에는 「아름답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령이 많지만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로마 십장十五절에는 「아름답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구적 생활을 할 때는 자연히 내면에서도 강하게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때문이다. 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전하라는 명령이 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라는 명령이 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라는 명령이 있다.

예수傳(37)

이 그림은 예수께서 예루



—소경을 보게하신 예수—

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그 리고 있다. 소경 자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기를 그치지 않은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부르시니 소경은 건넌을 내어 버리고 뛰어들어 예수께 나옴이니 그 믿음에 칭찬을 받으며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우리들도 인생의 앞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이 소경과 같은바 은혜 받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 자기 뜻을 행할 만하다.

出埃及工夫 (上)

熊本敎會 牧師 金得三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판에는 마치 구약성경 위에 있는 신약성경의 판에 비추어 창세기는 하 나님의 시험을 받아 여 지를 그리워 있으나 본 서는 그 인간을 구원 하시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속 의의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구약성경에 있어 서도 특별히 속죄의 면에 있어서는 이세를 나타내 고 있다. 처음에는 어두운 구 락이 덮여있고 고역과 박 해의 장면으로 시작이 되 지 만 장면으로 끝났고 있다.

노예상태에서 신을 하는 히브리 족속에게 대하여 하 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손 을 펴시며 그 하나님을 구 원하신 히브리 족속에게 어떻게 내리 임하셨는가를 본서의 区分과 해설

一、고역과 박해 (一장)

창세기와 본서의 년대차 는三五〇년 즉 세기만이 는 다르다. 창세기가 한가 족의 역사라고 하면 본서는 민족의 역사이다. 바로 왕과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이주하게 된 이스 라엘족은 창대하고 번영 하여 일대 세력이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에 게 가혹한 강제노동과 영아살 육 식량제한 등 정치적으로 압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나 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방 주일학교 주사로 환 동하게 되었읍니다.

창세기에서 본서의 년대차 는三五〇년 즉 세기만이 는 다르다. 창세기가 한가 족의 역사라고 하면 본서는 민족의 역사이다. 바로 왕과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이주하게 된 이스 라엘족은 창대하고 번영 하여 일대 세력이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에 게 가혹한 강제노동과 영아살 육 식량제한 등 정치적으로 압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나 이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방 주일학교 주사로 환 동하게 되었읍니다.

ラザロの座にある兄弟

光明園を訪ねて

人がなすべき善を知りながら行わなければそれは彼にとつて罪である(ヤコブ四章十七節) 私達が光明園を訪ねたのは昨年のクリスマスであった。それから光明園の計画をした。この計画を神が待ち望んでゐるなら勇気と力を与えて下さる事を信じて十月十二日午後一時乗用車二台に金榮植牧師と私達七名が分乗して最初の目的地水島教会に向つて出発した七時間もゆが沈んで一面に暗く教会の灯だけが明るく輝いてゐた。もちろん水島青年会及び全信徒が大歓迎して下さった事は言うまでもなく彼らと懇談する時間まであつた事は本當に有難く感謝の気持ちで一ぱいである。

設は全部完備されてあり、建ちならぬような家屋はちやうど団地のよう清潔であつた。海がくまに清くある家も幾つかあり園内には、家畜を育てる人、海に出て魚を釣る人、野菜を栽培する人、この様な仕事の日課であり楽しみでもあるとの事でした。

この園にも多くの韓国人が住んでゐるが教会に出席してゐる人は一部にすぎず、その人達が組織してゐる養育会が同胞の伝道の為に働んでゐるという事でした。隣りの愛生園にも同胞が多く療養してゐる、同じ問題で悩んでゐるといふ、しかし、この島にもキリストを信じ、その愛に導かれて生活してゐる人がいるとは本當に有難く、大いに学ぶところがありました。また彼らは韓国人としての誇りをもち先生がいなくとも韓国語の勉強をやつてゐるといふことでした。韓国人の讃美歌と聖書が手に入らないので困つてゐる(ヨハネ福音書二一の17)

「イエスは三度目に言われた、ヨハネの子シモンよ、わたしを愛するか。ペテロは「わたしを愛するか」とイエスが三度も言われたので、心をいためイエスに言つた、「主よ、あなたはすべてをこ存じます。わたしがあなたを愛してゐることは、おわかりになつてゐます。」(ヨハネ福音書二一の17)

主は我らをしり給う

裴 琪 煥

右の節には、我らに対する神の深い愛が示されてゐる。復活の主は、自分を拒んだペテロに「わたしを愛するか」と三度も問ひかけられた。その問ひに対する、ペテロの三度の答へは、最初の二回は「あなたがご存じます(オイダ)」(15・19節)であつたが三度目の「おわかりになつてゐます(ギノスコ)」

「(17節) いうのであつた。この「ご存じます」と訳されてゐる「オイダ」というギリシア原語は、普通に知るといふ時に用ゐられる語であるのに対して「おわかりになつてゐます」と訳されてゐる「ギノスコ」という原語は深く知る、識りつくしてゐるという意味を現わしてゐる語である。ペテロの答へは、問ひ続けられる主の質問によつて浅薄な答へから深められた答へに無自覚な答へから自覚された答へに正され深められて行つたように思われる。イエスに問ひかけられた時、彼は「私が主を愛してゐることは主がご存じます」と答へた。この場合に「主がご存じます」といふのは普通の人間が他の人間を知るような場合のよう

「我らの髪の毛の数をさへもしりつくして居られるのである。ペテロの生の根柢は正に神の彼に対するこの全知に懸つてゐたのである。パウロもこれと同じようなことをピリピ人への手紙一六に告白してゐる。我らの主は我らのすべてを御存知なのである。我らをしてこのようにしりつくして居られる主はこのような現実にも拘らず、我らを信任され大事な業をお任せ下さつたのである。」

人間味あふれる独逸人

ハイデルベルク 金 君 植

K 牧師様へ
其後お交りなくお過ぎの事と存じます。もっと早くお便りする筈でしたが諸般の事情により今日まで無音に過して、懺悔の余地もありません。ハイデルベルクというところはドイツでも有数の美しい所であるだけにドイツ国内は勿論、世界各地からの観光客でにぎわつております。ネツカ河畔を散歩しながらハイデルベルクの城を見上げる気分は何とも言えないですね、それにドイツ人特に中年以上の夫

婦はお天気さえよければよく散歩してゐます。このドイツに来て、人間が本當に生きてゐるやうな感じがします。日本は人が多すぎるせいかもしれませんが、何か追われてゐるやうな気持ちで生きて来た自分を反省してゐます。私の同室のドイツ人の勉強ぶりに圧倒されます。まだ神学を二年少々しかやつておりませんが、に相当な自信を持ってゐます。世界一流の書物を母国語でよめる事の出来る特権をもつてゐるのがうらやましく感じます。一度つくえの前に座ると余程の事が無い限り、三・四時間は一心不乱に本

「に結婚して一生苦労するよりは少々そのにおいにかまんさえすれば物質的に心配のない事をいふことは外国人と結婚する事が多いこととです。僕にも君はかえたら何になるのかとよくききます。はじめはホームシックにかかりいてもたつてもたらないと思ひましたがなれてきました。これから留学する人特に家族持ちの独り留学はあまりすすめてくれないですね!これから少し言葉の練習にうちこみドグマティック教義学の方に進もうかと思つております。ではこれにて失礼させていただきます。御家族の皆様によろしく……」

青年問題研究会

三月三十一日~四月二日
場所 飯盛野 教会堂
主題 在日韓国教会と使命

人がなすべき善を知りながら行わなければそれは彼にとつて罪である(ヤコブ四章十七節) 私達が光明園を訪ねたのは昨年のクリスマスであった。それから光明園の計画をした。この計画を神が待ち望んでゐるなら勇気と力を与えて下さる事を信じて十月十二日午後一時乗用車二台に金榮植牧師と私達七名が分乗して最初の目的地水島教会に向つて出発した七時間もゆが沈んで一面に暗く教会の灯だけが明るく輝いてゐた。もちろん水島青年会及び全信徒が大歓迎して下さった事は言うまでもなく彼らと懇談する時間まであつた事は本當に有難く感謝の気持ちで一ぱいである。

設は全部完備されてあり、建ちならぬような家屋はちやうど団地のよう清潔であつた。海がくまに清くある家も幾つかあり園内には、家畜を育てる人、海に出て魚を釣る人、野菜を栽培する人、この様な仕事の日課であり楽しみでもあるとの事でした。

この園にも多くの韓国人が住んでゐるが教会に出席してゐる人は一部にすぎず、その人達が組織してゐる養育会が同胞の伝道の為に働んでゐるという事でした。隣りの愛生園にも同胞が多く療養してゐる、同じ問題で悩んでゐるといふ、しかし、この島にもキリストを信じ、その愛に導かれて生活してゐる人がいるとは本當に有難く、大いに学ぶところがありました。また彼らは韓国人としての誇りをもち先生がいなくとも韓国語の勉強をやつてゐるといふことでした。韓国人の讃美歌と聖書が手に入らないので困つてゐる(ヨハネ福音書二一の17)

「イエスは三度目に言われた、ヨハネの子シモンよ、わたしを愛するか。ペテロは「わたしを愛するか」とイエスが三度も言われたので、心をいためイエスに言つた、「主よ、あなたはすべてをこ存じます。わたしがあなたを愛してゐることは、おわかりになつてゐます。」(ヨハネ福音書二一の17)